

## ‘풍전’에서 ‘무인’으로 당호에 따라 바뀐 책읽기 습관

이홍섭 | 시인 · 문학평론가

원래 내 호는 풍전(風田)이었다. 한글로 ‘바람밭’이라 풀이할 수 있는 이 호는 사실 을지로의 한 나이트클럽 이름에서 따온 것이었다. 일 때문에 다니던 한 인쇄소가 이 나이트클럽 근처에 있어서 나는 자주 그 앞을 지나치게 됐다. 본디 한자가 무엇이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 이름을 예의 풍전으로 해석하고 나이트에 참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끄덕이곤 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 나이트장은 실제 삼, 사십대의 ‘바람밭’이었다고 한다.

이 이름이 내 호가 된 것은 순전히 작명에 일가견이 있는 시인 장석남 때문이었다. 말 배우고 반생을 사귀 이 친구는 내가 술 취할 때마다 “우리 풍전이나 갈까”라고 중얼거린 것을 귀에 담아뒀다가 아예 내 호를 ‘풍전’이라 붙였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단 한번도 함께 그 나이트에 가본 적이 없다. 언젠가 나 혼자 슬쩍(?) 가 본 적이 있는데, 오로지 내 호의 거처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만 해주자.

내 지난날의 책읽기도 그야말로 바람밭이었다. 바람 부는 대로 읽었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시마’(詩魔)가 막 들던 고등학교 시절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책은 다름 아닌 문예지 《한국문학》이었다. 내가 《한국문학》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이름도 모르는 어느 가난한 문인 덕이었다. 당시 고향 강릉에는 헌책방이 여러 곳 있었는데, 그 중 한 곳에 누군가 다 읽고 팔아버린 《한국문학》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어느날 문득 그것을 발견한 나는 참고서 산다고 타온 돈으로 그 철 지난 《한국문학》을 한번에 세권씩 사들였다.

세권을 독파하면 또 세권을 사러 집을 나쳤다. 어떤 날은 여섯권을 사 양손에 들고 오기도 했는데, 돌이켜 보면 그 시절이 아마도 시마가 가장 굶주려 있었던 때였던 것 같다.

당시 《한국문학》에는 ‘대학생문예현상’ 당선작들이 실려 있었고, 권말부록으로 외국장편이 전제돼 있었다. 그 때 처음 본 ‘대학생문예현상’ 당선자들 대부분은 요즘 우리 문단의 허리가 돼 있다. 권말부록으로 읽은 장편중에는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의 생》이 기억난다. 처음 읽었을 때 얼마나 감동적이었던지 나중에 단행본으로 나왔을 때 다시 사서 읽어 보기도 했다. 문예지는 그야말로 문학백화점이다. 지금은 그 설렘이 많이 가셨지만 《한국문학》으로 시마를 달랜 나에게 문예지란 존재는 언제나 문학백화점으로 들 어간다는 기대와 흥분을 주곤 했다.

그 이후 많은 책을 읽었지만 나는 언제나 번지르한 백화점을 들락거린 유한부인의 태도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허균·백석·김현, 그리고 경허선사의 글을 꼼꼼히 읽었으니 발끝만치도 따라가지 못했으니 함부로 읽었다 말할 수 없고, 여러 명문들의 향기를 맡으려 쿵쿵거리 보았으나 그들의 향기를 따르지 못했으니 감히 썼다, 읽었다 밝힐 수 없다. 자작호대로 나는 책읽기에서도 바람밭을 서성이는 마른 옥수수대궁과



일러스트레이션 | 최정규

같았다.

그런데 얼마 전 나는 비로소 진짜 호를 받았다. 나에게 호를 주신 분은 내가 사 년 가까이 시봉한 노스님이었다. 시인이기도 한 스님은 나에게 이제 그만 하산하라고 명하시며 '무인(無人)이란 당호(堂號)를 내려주셨다. 다른 사람들에게 호를 줄 때는 나를 못 본 체하시더니 떠나는 날 비로소 가슴에 담아뒀던 호를 가만히 내미셨다. 나는 떠나면서 비로소 그분의 속가상좌(俗家上佐)가 된 것이다.

스님이 붓글씨로 써주신 전당계(傳堂偈)에는 다음과 같은 《벽암록》 제58칙의 송(頌)이 한문으로 적어져 있었다.

象王嘯呻 獅子哮吼.

無味之談 塞斷人口.

南北東西 烏飛兔走.

코끼리가 기지개를 켜고 사자가 크게 포효하는구나  
맛을 알 수 없는 말씀을 하니 사람의 입을 꼭 막아 버렸구나  
동쪽 서쪽 남쪽 북쪽으로 까마귀는 날고 토끼는 달리도다

스님은 젊은 내가 산속에 웅크리고 있는 것을 못내 안타까워하셨고 때로는 부담스러워하시곤 했다. 전당계에는 그런 내가 세상속으로 나아가 큰 뜻을 펼쳐보라는 스님의 당부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물론 이 인용구 앞에는 당호가 나오게 된 다른 구절이 있다. 그러나 나는 그 구절을 굳이 밝히고 싶지 않다. 다 드러내면 내가 받은 그 짐이 너무 가벼워질 것 같고, 가벼워져서 혹 스님이 애써 담은 당부와 애정이 날아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기실 이 당호는 내가 젊어지고 가기에는 너무 크고 버겁다. 스님도 어쩌면 이 당호를 짐처럼 내 삶에 부러놓으신 것인지도 모른다. 누워 있다가도 이 당호가 떠오르면 숨이 턱 막히곤 한다. 세상에 무인(無人)이라니.

내가 스님을 시봉하면서 지켜본 바에 따르면, 스님은 작호·작명에 일인자였다. 여러 선서(禪書)에서 딱 두 글자를 뽑아오는 습성은 그야말로 촌철살인적이어서 웬만한 시인 여럿이 덤벼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았다. 그런 면에서 스님에게 범명을 받고 일평생 운수납자로서 살아가는 상좌스님들은 행복한 분들이었다. 평생 지고 가야 할 범명이 해당화처럼 멀리까지 향기를 내뿜으니 그것만한 복이 어디에 있을까.

그러나 나에게 준 호는 해도 너무 하셨다. 무인이란 호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살이란 살은 다 발라내고 그야말로 뼈만 남긴 호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스님의 상좌들 중에 무자(無字) 돌림은 내가 아는 한 없었다. 무자 돌림으로 유일한 것은 스님이 공들여 지은 선원(禪院)의 이름밖에 없었다. 어쩌면 스님께서는 그 선원이나 평생 도반 삼아 걸어가라고 하신지도 모른다. 그러니 숨이 턱 막히고 오금이 저릴 수밖에.

어쨌든 나는 스승 없이 지었던 이름, 풍전을 지나 무인으로 왔다. 허허벌판이긴 마찬가지나 앞의 호가 족보 없는 후례자식이었다면 뒤의

호는 엄연히 족보를 지닌 적자라 할 수 있다. 나는 이 은사스님께 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승가사회의 엄정함과 외로움, 그리고 평생 바람처럼 살아오신 한 노스님의 책임기를 배웠다.

이따금 바람이 지나가듯 하신 말씀을 모아보면 스님의 공식학력은 초등학교 중퇴쯤 되는 것 같다. 가난 때문에 절간의 소머슴을 하다가, 스님의 표현을 빌면, 소꼴 베다 문득 출가한 스님은 오로지 홀로 공부해 일가를 이룬 독학자의 한 전형이었다. 우직하면 명석하기 어렵고, 명석하면 우직하기 어려운 게 세상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스님은 우직함과 명석함을 함께 지닌 드문 분이였다.

스님은 그동안 지금은 절판된 시조시집 한권과 불교우화집, 선화집(禪話集)등을 펴냈고, 앞의 송이 들어가 있는 《벽암록》 해설집을 세상에 내놓으셨다. 나는 다른 책들은 몰라도 《벽암록》 해설집을 펴낼 때는 마침 옆에서 시봉을 거들 때라 그 과정을 조금은 알게 됐다.

스님은 자신이 직접 지으신 선원에 젊은 수좌들과 함께 들어가 동안 거, 하안거를 잇달아 나셨는데 면벽 대신 이 《벽암록》을 번역하고 나름대로 해설을 부치셨다. 당시 스님은 지독한 풍치로 고생하셨는데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작업을 마치셨다. 어느 날은 피고름이 흐르는 이를 짊어 물고 앉아 계셨는데, 그 모습은 마치 이 세상 그 무엇과 처절하게 맞서는 듯한 바위산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다. 스님은 서문에서 당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 “하지만 한 해 겨울 한 해 여름, 두 철을 무급 선원 골방에서 징역살이를 하며 끙끙거리다가 생각하니 내가 사람이 아니라 목욕한 원숭이가 갓을 쓰고 조사의 얼굴에 똥칠을 하는 것 같았다”

스님께서 《벽암록》 해설을 마친 뒤 바뀐 점이 있다면 스님을 ‘큰스님’이라 부르는 사람들을 일갈해 쫓아낸다는 것이었다. 나도 습관대로 ‘큰스님’이라 불렀다가 문전박대를 당한 적이 있었다. 스님은 “지랄들하고 있네. 내가 무슨 큰스님이고, 별레만도 못한 중인데”라고 말씀하셨다.

산에서 내려온 지금도 나는 스님의 그 정정한 목소리를 듣는다. 아니 이따금 그 목소리를 불러내 벽에다 턱 붙여놓는다. 무엇인가와 맞선다는 것, 무엇인가와 맞서 자신을 깨부수고 한없이 작아져 별레와 같아진다는 것, 나는 스님이 주신 당호를 생각하면 책임기도 그와 같이 하라는 스님의 무서운 음성을 들곤 하는 것이다.●